

13/08/17

마두반

너희가 “한 분”의 만트라를 기억할 때, 그 한 분이 너희 각자에게서 보여 질 것이다.

1982/06/13

천사체 밥다다 음 샨티

(천사체 밥다다 선생들을 만나심)

오늘 바바는 자녀들의 사랑과 협조 그리고 변모하려는 결심의 향기를 취하려고 그들의 모임에 왔다. 밥다다의 행복은 자녀들의 행복에 있다. 너희 자녀들은 이 불멸한 행복과 불멸의 향기가 항상 끊임없이 너희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불멸한 생각을 가져왔다, 그렇지 않느냐? 설립의 초창기에 서로 서로 적고 또 말하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느냐? 어떤 말들을 쓰곤 했었느냐? “사랑하는 본래의 영혼”. 이 말은 너희들이 영혼의식이 되고 남들도 영혼의식이 되게 만드는 쉬운 방법이었다. 너희들은 이름이나 모습을 보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 당시에 하던 훈련을 기억하느냐?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형태였다! 너희가 어떤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느냐? 초창기에 했던 그 말들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라. 그러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깨달음의 화신이 될 것이다. 하나에 대한 만트라는: 한 아버지, 하나의 가정, 하나의 지시, 변함없는(에크 라스-한 분과의 동반을 즐김), 하나의 왕국, 하나의 종교, 하나의 이름? 영혼, 하나의 형태이다. 너희가 이 하나의 만트라를 계속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남들이 너희 각자에게서 그 한 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쉽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 모두에게서 오직 한 분만 보일 때, 너희가 하는 “나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한 아버지 뿐”이라는 노래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렇지 않느냐?

밥다다는 눈으로 너희를 만나려고 왔다. 자녀들이 불러서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사랑에 대해 응답했다. 너희가 요청한 것은 모두 일어났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 모두는 바바에게 단 몇 순간만이라도 와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모두의 메시지가 바바에게 도달했다.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밥다다가 들었다. 그것이 소리로 되기도 전에 밥다다에게 도달한다.

(바바가 시스터 자얀티를 보며 말씀하심): 외국에서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음이 멀지 않으면 땅도 멀지 않다. 마음은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서로 가까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너희는 함께 하고 있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표시이다. 밥다다는 열의와 열정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너희 특별한 도구 영혼들을 축하하고 있다. 바바는 너희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녀들의 몸은 거기에 있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보고 있다. 밥다다는 이 모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보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바바의 기억은 그들에게 가 닿는다. 그래도 바바는 사랑의 끈에 묶여있는 자녀들 그리고 계속 가까이 머무는 자녀들 모두를 보며 특별한 사랑과 기억을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몸은 여기에 없지만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의 마음 또한 여기에 있다. 밥다다는 그들에게도 특별한 사랑과 기억을 주고 있다. 앗차.

밥다다가 니르웨어 형제를 만나심.

이 사람도 외국으로 갈 것이다. 너는 항상 준비가 되어있다,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다정한 드라마라고 한다. 너희가 그 생각을 한 순간부터 세 개의 점에 대한 틸락을 선물로 받았으며, 드라마에 따라 세 개의 점의 틸락이 다시 찍혀졌다. 이 틸락은 이미 찍혀졌었는데 다시 한 번 찍혀졌다. 이 불멸의 틸락이 항상 너희의 이마에 찍혀 있다, 그렇지 않느냐? 세 개의 점 모두가 함께 있다. 밥다다는 이미 미묘한 지역에서 이 틸락으로 너희를 환영해 주었다. 그것이 좋으냐? 너희는 어떠한 형태로 특별하게 메시지를 줄 것이냐? 어떤 교훈을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상기시키겠느냐?

“계속 꾸준히 열의와 열성을 가지고 날아라!” 너희의 경험으로 모든 이에게 이 특별한 교훈을 가르쳐라.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불멸한 교훈이 된다. 그 경험에 머물고 또한 그 같은 경험을 남들에게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특별한 새로움이 있게 해라. 말로서 하는 공부가 오래 동안 계속되었다. 지금은 모든 이들에게 이 공부가 필요하다. 이 방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나르는 단계로 가게해라, 왜냐하면 경험은 모든 권위 중 가장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의 권위를 가진 자들은 다른 어떤 권위에 의해서도 공격받지 않는다. 마야의 권위는 그들에게 작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이 방법을 자각하고 있어라. 이것이 새로움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누군가 어디를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상징으로 있으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을 상징들로 만드느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해라. 이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느냐? 드라마에 따라, 지금이 봉사를 위한 적시로 정해진 것이라는 그 시간에 대해 생각을 해라. 너희의 다른 생각들은 끝났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1초 만에 모든 준비를 했다, 그렇지 않느냐? 모든 물리적인 시설들이 거기에 있다. 그것들은 이미 만들어진 시설들이다. 만일 어떤 것이 남아 있더라도 별일이 아니다. 만일 너희가 단지 두벌의 옷만을 가지고 이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너희는 그곳에 가서 기성품을 가질 수 있다. 너희의 미묘한 준비가 다 되었다, 그렇지 않느냐? 물리적인 준비는 별것 아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라. 그들은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기에 단지 저 세상의 설립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왜 있느냐?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은 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너희의 생각, 너희의 세상이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주어라, 이런 생각은 세상의 창조자인 아버지에게 이미 도달했다.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너희 모두가 가지는 소망은 하나의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싸움이 없는, 사랑이 있는 곳, 너희 모든 영혼들의 그 소망이 실현될 그 때가 지금 왔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알아야한다. 방법이 정확하면 성공도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성공할 것이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회의들의 결과를 이미 보았지만, 그 생각이 너희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다. 싸움과 전쟁의 씨앗이 끝나버린다면 비록 거기에 무기 등이 있다하더라도, 절대로 그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무기들이 아니고 인간의 분노이기 때문이다. 그 씨앗은 분노이다. 그러므로, 그 씨앗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성공은 이미 성취된 것이다; 싸우고 전쟁하는 것의 씨앗은 끝날 것이다. 지금이 모든 영혼들의 소망이 충족되어질 그 때이다. 때가 모든 이의 지각을 고무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은밀한 과업이 모든 이를 그쪽으로 이끌지만,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를 모른다. 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 생각을 하고서는 사용하지 않는가? 설립의 과업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변모와 설립의 과업은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는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들의 느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라. 그러나 너희가 그들에게 말해주어야 하는 것은 평화는 오직 평화의 대양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이다. 어떤 근거로 이 형제애의 느낌이 있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고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그런 무기들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조차 끝내버리고 거기에 형제애가 있게 해라. 형제애가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아버지가 임하신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형태로 모든 것을 말해라. 그들은 평화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다. (비평화는 평화의 방법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 평화가 어떻게 올 수 있겠는가? 그것을

위해서는 만트라가 있어야한다. 너희는 평화의 교훈을 가르친다, 그렇지 않느냐? 나는 평화입니다, 나의 집도 평화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평화의 대양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교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라. 평화의 교훈과 오직 평화만 있다. 사람들은 단지 몇 순간만 이것을 경험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들이 죽음과도 같은 정적을 단 몇 순간만이라도 경험을 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고마워 할 것이다.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를 신으로 여기기 시작할 것이다. 지적인 사람일수록 더욱더 고통을 느낀다. 그러한 고통에 친 영혼이 한 줌만이라도 받으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축복이 될 것이다. 누구든 기회가 되면, 말하는 동안에도 그들을 침묵으로 이끌어라. 단 일 초 만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하면 그들이 아주 많이 고마워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광선을 경험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들이 그런 것을 단지 1초나 1/2초 만이라도 경험하면, 그들은 그 분위기 안에서 그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들은 그 안에 오래 동안 머물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일초나 1/2초 동안만이라도 분위기를 아주 가볍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대단한 격동 속에 있기 때문이다. 밥다다가 그들을 보면 많은 동정심을 느낀다. 그들은 밤이나 낮에도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들은 먹어야 하는데도 식사를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짐을 지고 있는 것과도 같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런 영혼들이 잠깐 엿보기라도 한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태양이 그들을 위해 내려온 것과도 같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훌끗 보기만을 원할 뿐이다. 그들은 그런 힘을 오래 동안 받아들일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몇 초의 문제이고, 마치 파도가 오고 가는 것과도 같다. 만일 그들이 이 만큼만이라도 경험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많은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지푸라기처럼 아주 작은 어떤 것의 도움이라도 그들에게는 아주 많은 것이다. 앗챠.

너희의 소망이 충족되었느냐? 아버지의 행복은 자녀들의 행복에 있다. 너희는 성공의 화신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성공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성공이 다른 어디로 가겠느냐? 모든 성공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있다.

너희는 마침표를 어떻게 찍는지 아느냐? 아니면 마침표 위에 물음표가 올려 있느냐?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저 아주 작은 점에서 커다란 뱀(효과가 오래가는)이 만들어지는 그런 폭탄을 사용한다. 마침표가 이곳에도 찍혀야 한다. 모든 것은 점으로 합쳐진다. 성냥개비가 그들의 생각에 있게 되면 그것이 뱀이 된다. 성냥개비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밥다다는 자녀들의 놀이를 계속 지켜본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유익이 들어 있다. “왜?” 또는 “무엇?”이라는 의문들은 없다. 너희가 경험해야 했던 것은 모두 경험했다. 너희는 자신을 변모시켰으니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라. 이것이 완전한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의 의미이다. 이 놀이를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바바 옆에 다디 지와 다디 찬드라마니가 앉아 있다): 이것은 행렬의 아름다움이다. 이것은 밥다다의 특별한 장식품이다. 너희 모두 앞에, 누가 가족의 장식품이냐? 이 다디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 모두는 이 특별한 영혼들에 대해 너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특별히 하고 있느냐? 그들이 아마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불멸하게 됨으로써 너희 모두에게 한결같이 계속 협조를 해준다. 한 다디에게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조차도 모든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 도구들은 물리적인 형태로 있는 차양과도 같다. 사실 너희는 아버지의 보호의 장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험 있는 영혼들은 마스터 보호의 장막으로써의 도구들이다. 태양이 뜨겁거나 비가 오면 너희는 차양 아래로 들어간다. 문제가 생기면 너희 모두는 무엇을 하느냐? 너희는 그들에게 직접 가야한다. 너희는 아버지와 마음을 터놓은 대화를 하면서도 여전히 마두반으로 편지를 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언제 놀러 가는지

보아왔을 것이다, 그들은 때때로 천막을 치고 오락프로그램을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곳에 우산들이 있다. 프로그램을 할 때는 오락도 제공된다. 마두반에서 너희는 웃고 춤추고 노래한다. 그래서 밥마다 또한 자녀들이 즐기는 것을 보면 기쁘다. 이 사랑이 모든 사람을 아버지에게로 이끈다. 그들이 도구들인 것처럼, 너희 모두도 너희가 있는 장소에서 자신들을 장막이라고 생각해야한다. 너희가 누구를 위한 도구자이든 그들이 너희를 안전의 수단으로 경험해야한다. 그들이 의존하게 되어서는 안 되며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도구자로서 지지와 협조를 줄 수는 있지만, 지원을 해 주는 자로서 지지하지는 말아라. 도구로서 지원을 주는 것과 지원을 해 주는 자로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너희는 자신이 지원자라고 생각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너희를 자신의 지원자라고 생각한다면, 둘 모두의 이름이 언급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만약 너희가 그것을 봉사로 생각하며 도구로서 올바른 방법으로 지원을 준다면 그 지원은 그들의 열의와 열성이 늘어나게 되고 보고서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너희들을 자신들의 모든 것이라고 느낀다거나 자신들의 유일한 지원자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을 지원을 주는 자가되어 지원을 하는 것이라 한다.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과 도구로서 지원의 협조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두는 어느 쪽이냐?

자신의 몸으로 또는 다른 몸들로 봉사를 하던, 마지막에는 모든 배우들이 함께 무대로 올 것이다. 모든 배우들이 함께 무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거기에 승리의 외침이 있고 나서 완성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들의 역할은 설립의 과업에 은밀하게 협조하는 것이다. 너희의 모습은 눈에 보인다. 그들은 은밀한 방식으로 그들의 설립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커튼이 열리는 때는 모든 이가 준비되고 완전해질 때이기 때문이다. 커튼이 열리는 때, 완성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모두는 이런 식으로 준비되었느냐? 커튼을 열 모든 준비가 되었느냐? 상속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영혼들의 염주가 준비되었느냐? 108은 완성에 아주 가깝다. 너희는 전적으로 온전해져야 한다. 시간에 있어서 조차도, 너희는 완벽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의 표시는 무엇이냐? 염주의 특질은 무엇이냐? 염주가 완성이 될 때 어떤 특별한 표시가 보여 지느냐? 모든 구슬들이 서로 옆에 꿰어져 있다. 그것이 염주의 표시이다. 너희의 염주의 특질은 너희의 산스카라에 있어서 서로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구슬들이 나란히 함께 꿰어 있게 해라. 그런 준비가 되었느냐? 어떤 구슬을 보든지, 비록 그것이 108번째의 구슬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구슬들과 함께 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함께 있다. 너희 모든 구슬들이 그 염주에 꿰어져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해라. 너희 모두가 그런 다양한 산스카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 가까이 꿰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지 말아라; 아니다. 비록 다양한 산스카라들을 갖고 있더라도 너희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야 한다. 다양성의 기반 위에 순번이 만들어지지만, 구슬들은 여전히 서로 가깝다. 그 구슬들이 서로 달지 않고서는 염주가 만들어질 수 없다. 염주에서 단 한 개의 구슬만 빠져도, 그것은 끊어진 염주가 될 것이다. 그것은 숭배받을 가치가 있는 염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구슬들이 서로 떨어진다면, 그 염주는 숭배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해 질 것이다. 만약 108번째의 구슬이 조금만 떨어져 있다 해도, 그것은 그 염주가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앗차.

Blessing: 모든 힘을 자신의 명령 하에 둠으로써 쉽게 성공을 달성하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가 되어라.

너희가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정도에 따라 그만큼 모든 힘들이 너희의 명령하에 있을 것이다. 신체 기관들은 너희가 명령을 내릴 때마다 그 명령에 따라 기능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묘한 힘들도 너희의 명령하에 일하게 해라. 만일 모든 힘들이 지금부터 너희의 명령 하에 있으면 너희들은 끝에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힘들이 있을 때는 성공이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Slogan: 미묘한, 무체의 단계에 쉽게 너희 자신을 안정시키려면 예고 없이 되어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